브롱코가 돌아온다… 포드코리아, 혁신 SUV 5종 출격 대기

1세대 '브롱코' 현대적 재해석
'링컨 노틸러스' 안전·편의성 강화
"오프로드 기술력 위상 증명할 것"

포드 정통 오프로더 '브롱코'

'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이하 포드코리아)는 2022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니즈를 충족할 다섯 종류의 새로운 SUV 모델을 선보인다.

지난해 익스플로러 플래티넘과 익스페디션, 네비게이터 등 세 가지 SUV와 레인저 와일드트랙, 랩터 등 픽업트럭을 선보인 포드코리아는 올해도 자사의 차별화된 SUV 모델을 출시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해 나갈 방침이다.

16일 포드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출시하는 모델은 '야생마' 브롱코와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링컨 노틸러스와 링컨 네비게이터, 포드 익스페디션 부분 변경 모델 등이다.

우선 브롱코는 약 25년만에 부활한 포드의 정통 오프로더 SUV 모델로 1966년 첫 출시 후 북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1세대 브롱코의 디자인적 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외관이 특징이다. 여기에 포드가 자랑하는4륜 구동 오프로드 주행 기술력과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안전, 편의 사양이 적용됐다.

포드 정통 오프로드 SUV의 유산을 현대적 기술과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브롱코는 거친 아웃도어 활동의 동반자로서 구매자의 대자연에 대한 열망과 험난한 비포장 도로에서의 느낄 수 있는 모험심을 다시금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포드코리아는 올해 1분기내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익스플로러는 국내 수입 대형 SUV 시장을 선도해 온 모델로, 꾸준히 포드의 간판 SUV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모델의 추가로 국내 대형 SUV세그먼트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드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는 리미티드 사양에 3.3L V6 엔진과 10단 자동변속기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결합하여 동력 퍼포먼스, 성능 그리고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가격은 부가세 포함 6770만원이다.

링컨코리아는 한 단계 진화한 첨단 사양 탑재 및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를 거친 2022년형 노틸러스도 2분기내 출시 예정이다. 2022년형 링컨 노틸러스는 링컨 SUV만의 독특한 피아노 건반 형태의 전자식 변속기, 링컨 라인업 중 가장 큰 13.2인치 SYNC4 터치스크린을 장착했다.

또 다양한 기능을 갖춘 코-파일럿 360 (Co-Pilot 360TM)을 적용해 탑승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한 층 더 높였다.

2022년 링컨 노틸러스는 2.7L 트윈터보 차지 V6엔진을 탑재한 리저브 모델로 출시되며, 기본모델(200A)와 상위모델(202A) 두 가지 사양 중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각각 부가세 포함 6040만원, 6890만원이다.

또 자사의 플래그십 모델이자 풀사이즈 대형 SUV인 네비게이터의 부분 변경 모델, 2022년형 네비게이터를 올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포드의 풀사이즈 SUV 익스페디션도 부분 변경 모델도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데이비드 제프리 포드코리아 대표는 "한국 소비자는 자동차에 대한 높은 안목을 지녔으며, 포드코리아는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내 SUV 라인업 다양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국내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브롱코의 출시는 한국 SUV시장에서 포드의 SUV 및 오프로드 기술력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KIRIA '5G 첨단 제조로봇' 실증 지원

실증환경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계약
다품종 첨단 제조로봇 공급 등 수행

KT 제안·수행2본부와 KT 대구·경북법인고객본부 직원들이 5세대 통신망 첨단제조 실증환경 테스트베드 구축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KT

KT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과 '5세대 통신망 첨단제조 실증환경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진행하는 475억 규모의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 기반 구축사업'의 1차 사업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실제와 유사한 모의 제조환경의 실증 인프라 및 가상환경 구축을 통해 첨단 제조로봇 실증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KT는 대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실증지원센터에 ▲다품종 첨단 제조로봇 공급 ▲공정라인 및 제어·관리 시스템 구축 ▲홀로그램과 VR(가상현실) 등을 이용한 공정확인 보조설비 시스템 구축 ▲5G 통신과 관제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첨단 제조로봇 공급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협동로봇, 자율주행 모바일로봇,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공급하는 것이며, 공정라인 및 제어·관리 시스템은 다품종 혼류 생산공정라인을 구성해 이에 대한 제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공정확인 보조설비 시스템 구축은 VR 기반 테스트베드 설비의 전체 공정 및 단위 공정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현해 작업 현장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이며, 5G 관제 기반 시설 구축은 데이터 실시간 공유와 로봇 동작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KT AI Robot 사업단 이상호 단장은 "이번 사업으로 디지코 KT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로봇 분야에서 KT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KT는 앞으로도 국내 로봇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 대구/경북광역본부 안창용 본부장은 "국가로봇테스트필트 혁신사업지인 대구에 국내 최초의 테스트 베드 구축이 이뤄지게 돼 더욱 기대가 크다"며, "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KT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국내 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U+알뜰모바일 "요금제·사용량 챗봇에 물어보세요"

다이렉트몰에 챗봇 서비스 도입

앞으로 알뜰폰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이나 요금제 및 실시간 사용량 등 궁금증이 생겼을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디어로그는 메신저 기반의 채팅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U+알뜰모바일 다이렉트몰에 '챗봇 서비스'를 도입, 고객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고객들은 단순한 문의조차 고객센터로 전화해 상담사에게 질문하거나, 홈페이지 일대일 문의를 통해 질문을 남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사이트 이용 중 발생하는 궁금증이나 요금제, 실시간 사용량 등 문의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객은 챗봇에 ▲셀프 개통 안내 ▲실시간 사용량 조회 ▲가입 정보 조회 ▲이벤트&프로모션 등 간단한 조회 업무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U+알뜰모바일은 우버, 에어비앤비 등 유명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해 국내외 13만 개 이상의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젠데스크(Zendesk)'의 챗봇 솔루션을 도입했다. 젠데스크의 챗봇 솔루션은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연관 답변을 처리할 수 있고,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해 고객들은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U+알뜰모바일은 유사한 질문, 상황별 시나리오, 키워드 등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정교화해 챗봇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챗봇 도입에 따른 안정화 및 고객 질의 유형 데이터를 분석과 챗봇 응대 성공률을 관리하고, 실시간 상담사 채팅 응대 기능도 추가해 고객 편의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SKT

21일 'ZEM 꾸러기 폰' 출시

SK텔레콤은 삼성 갤럭시 XCover 5 기반의 LTE 키즈용 스마트폰 'ZEM 꾸러기 폰(SM-G525N_ZEM)을 오는 21일 출시한다.

'ZEM 꾸러기 폰'의 출고가는 29만9200원(VAT 포함)이며, ▲5.3인치 HD+ 디스플레이 ▲3000mAh 탈착형 배터리 ▲1600만 화소/500만 화소 전후면 카메라 ▲IP68의 방수방진 기능을 탑재했다. 'ZEM 꾸러기 폰'에는 자녀 케어용 소프트웨어로 각광받고 있는 SKT ZEM(잼) 앱이 있다. /채윤정 기자

KT 어린이용 스마트폰 '신비 키즈폰2' 선봬

'신비아파트' 시리즈 캐릭터 적용

모델이 KT가 출시하는 'KT 신비 키즈폰2'을 소개하고 있다. /KT

KT는 '신비아파트' 시리즈 캐릭터를 적용한 어린이 전용 스마트폰 'KT 신비 키즈폰2'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KT 신비 키즈폰2는 14일부터 온라인 KT샵과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고객에게는 ▲DIY 지비츠 케이스 ▲목걸이 스트랩 ▲신비 캐릭터 지비츠 4종 ▲영어단어 학습앱 '리도보카' 6개월 이용권 ▲ '투탕카멘-파라오의 비밀' 전시회 무료 관람권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채윤정 기자

KT

'케이딜' 설맞이 기획전

럭키드로우 등 경품 증정

KT가 자사 고객만이 받을 수 있는 문자기반 커머스 '케이딜(K-Deal)'에서 설맞이 기획전과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케이딜'은 KT 인공지능(AI)과 KT가 보유한 통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최상의 상품을 초특가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고객의 요구와 취향의 변화에 맞춰 선정한 상품을 KT 고객에게 문자로 추천해 준다.

KT는 지난 10일부터 설 선물세트 등 설날 맞춤 상품을 준비해 복주머니 할인쿠폰과 함께 초특가로 판매하고 있다.

KT는 매일 푸짐한 경품을 추첨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오는 17일부터 진행한다. 다이슨 에어랩, 갤럭시 워치,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발뮤타 토스터, 신세계 상품권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케이딜에 접속하는 누구나 매일 1개의 경품에 응모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데일리픽' 서비스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규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KT는 설 연휴 기간 '100원딜' 혜택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